



신한카드, 복지부·보건사회연구원과 3자 데이터 맞손
신한카드는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데이터 기반의 사회보장 정책 분석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축적한 공공분야 데이터와 신한카드가 보유한 가계 소비 빅데이터를 결합해 사회보장 정책을 보다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됐다. (왼쪽부터)임영진 신한카드 사장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카드



신협, 성남시청에 장애인 탑승용 리프트 버스 기증
신협사회공헌재단이 경기도 성남시 장애인과 교통약자의 교통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탑승용 리프트 버스 2대를 기증한다고 14일 밝혔다. 신협이 성남시청에 기증하는 장애인 탑승용 리프트 버스 2대는 현재 제작 중으로 오는 11월 '성남시장에 인연합회'와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인 '사랑의 학교'에 각각 기증된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 겸 신협사회공헌재단 이사장(왼쪽)이 은수미 성남시장과 포즈를 취했다. /신협중앙회



한세실업, 베트남에 의료용방호복 17만여벌 기증
한세실업이 베트남 정부에 70만 달러 상당의 의료용 방호복을 기증했다. 한세실업은 베트남법인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근 베트남 정부에 의료용 방호복 17만 600벌을 기증했다고 14일 밝혔다. 문양원 한세실업 아시아 총괄 법인장(왼쪽)이 쩡 쾡끄영 베트남 보건부 차관에게 방호복을 전달하고 이를 기증하는 판넬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세실업

롯데호텔서울 '서울 최고 비즈니스호텔상'

롯데호텔서울이 세계적인 비즈니스 여행 전문지 '비즈니스 트래블러'가 주관한 '2020 비즈니스 트래블러 아시아-태평양 어워드'에서 11년 연속 '서울 최고의 비즈니스 호텔상(2020 Best Business Hotel in Seoul)'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롯데호텔에 이어 그랜드 하얏트서울이 2위,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가 3위에 올랐다.



이번 수상에는 롯데호텔 서울의 하드웨어와 더불어 한국적 호스피탈리티 서비스가 높이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중심 업무 지구인 을지로에 자리해 비즈니스 여행객들에게 위치적 장점을 자랑하며 국내 최대 규모의 로열 스위트를 비롯한 총 1015실 규모의 객실, 국제회의 및 비즈니스 행사가 가능한 14개의 연회장은 비즈니스 여행을 위한 최적의 시설이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

을 자랑하며 국내 최대 규모의 로열 스위트를 비롯한 총 1015실 규모의 객실, 국제회의 및 비즈니스 행사가 가능한 14개의 연회장은 비즈니스 여행을 위한 최적의 시설이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에 김숙희 대표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10월)의 농촌 융복합산업인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쌈 영농조합법인(제주쌈)'의 김숙희 대표(사진)를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주쌈은 지역 내 농가와 술의 주원료인 쌀, 좁쌀, 감귤 등을 계약재배해 전통 기법을 활용, 3대째 전통주를 제조하는 업체다. 기업 부설연구소를 설치해 신제품을 개발하는 전략으로 농

촌융복합산업인에 성공한 케이스다. 제주 지역 농가와 연간 약 15톤의 쌀, 좁쌀, 감귤 등을 계약재배해 원료를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한편, 농촌 지역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 있다. /한용수 기자 hys@

진정 산업생태계가 조성되는 걸 원한다면



윤 위 중 의
잠시 쉼표

흔히 경제는 살아 있는 생명체와 같다고 한다. 경제를 이런 유기체들이 서로 어우러지는 생태계에 비유하기도 한다. 그만큼 역동적이고 변수도 많다.

생태계를 인간이 선부르게 개입했다가 실패한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쌀알을 먹는다면 참새를 닳치는대로 잡았다가 메뚜기가 창궐해 무려 4000만명의 인민을 대기근으로 사망케 한 중국 마오쩌둥의 어설픈 사고방식이 대표적이다.

산업생태계도 마찬가지다. 어설픈 개입이 오히려 조화를 깨뜨리고, 일을 망칠 수 있다.

지금 우리 정부는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을 살리겠다고 의욕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뿌리이자 중심이며 비대면과 디지털, 그린 등 유망 분야의 벤처와 스타트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차세대 반도체 분야와 미래차, 바이오 등 주요 신산업 분야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

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우리 경제에서 가장 약한 고리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살리겠다는 의지는 지극히 당연할 뿐 아니라 가장 시급한 과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대통령의 이런 선언에도, 정부와 여당의 행보에 아쉬운 점이 남는 건 어쩔 수 없다. 대통령도 언급했듯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산업 생태계가 조화롭게 이루어지는데, 현재의 정책이나 입법 과정에서 대기업들은 철저히 소외돼 있다. 낱알을 먹어대는 참새를 잡았다가 메뚜기가 창궐한 것과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산업 생태계의 관점에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살려면 대기업이 잘되어야 한다. 정부가 신산업분야로 지목한 차세대 반도체나 미래자동차, 바이오 등은 전 세계의 글로벌 대기업들이 경쟁을 벌이는 분야다. 국가대표급 기업들이 명운을 걸고 대규모 투자와 인력을 통해 먹거리를 찾는 분야다.

이런 분야에서 승부를 걸려면 우리도 국가대표급 선수를 육성하고 지원해야 한다. 그런 대표급 기업이 수많은 중소기업·벤처기업과 협력하는 게 바로 산업 생태계다.

하지만 정부는 대기업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단지 외면하는 것에 나아가 더 이상의 성장을 확실하게 막겠다는 의지까지 보인다. 이는 '경제3법 개정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은 기업들에 일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기업 본연의 업무 외적인 일에 더 신경쓰라는 신호다. 정부와 여당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경영 현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인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여론을 호도한 것이든, 기업들이 거짓말을 한 것이든 둘 중의 하나일 것이다.

대기업들에게 신산업 발굴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주기보다 새로운 규제를 만들고 여기에 대응이나 하라는 신호를 보내면 우리 경제에 미래는 없다. 대규모 투자와 우수한 인력 확보로 먼저 길을 터줘야 하는 대기업들의 발을 묶어버리면 중소기업이 참여할 기회 자체가 생길 수 없다.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서로 자기 역할을 해야 조화로운 생태계가 조성된다.

진심으로 신산업을 육성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들고 싶다면 어떤 정책을 우선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볼길 바란다.

/산업부장 yjh@metroseoul.co.kr

환자 위해 매주 200km 왕복 의사들 '눈길'

한림대동탄성심병원 교수 2명
서산의료원 파견... 주1회씩 방문
"치료 사각지대... 힘들지만 보람"



혈압 측정하는 한성우 교수

오로지 환자들을 위해 왕복 200km 거리를 매주 오가는 '낭만닥터'들이 있다. 국내 심부전 명의로 꼽히는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전 병원장 순환기내과 유규형 교수와 현 진료부원장인 한성우 교수다.

충남 서북부인 서산·태안 지역에는 148만 지역주민들이 거주하며, 지역 특성상 고령층이 많아 관상동맥질환, 심부전, 심장관막증 등의 심혈관질환 환자의 비중이 높다. 그러나 지역의 유일한 공공병원인 서산의료원은 심장관막질환을 담당하는 순환기내과 의사를 구하지 못해 심혈관질환을 앓는 환자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 서울이나 대도시의 대학병원까지 가야만 했다.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서산의료원과 협약을 맺고 순환기내과 교수 2명을 파견했다.

유규형 교수와 한성우 교수는 월요일과 목요일 하루씩 번갈아 가며 왕복 200km 거리의 서산의료원까지 직접 내려가

서 진료를 본다. 진료가 있는 날이면 새벽 6시에 출근해 담당 환자들의 상태를 살핀 뒤 오전 7시에 병원 차량을 타고 서산의료원으로 이동한다. 1시간 넘게 차를 타고 서산의료원에 도착한 뒤 오전 8시 30분부터 진료를 시작한다. 진료가 있는 날이면 많은 환자들이 몰린다.

61세 남성 A씨는 한달 전 심방세동으로 인한 빈맥으로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뒤 이곳에서 진료와 약 처방을 받고 있다. 그는 "전 같으면 약을 타기 위해 다른 지역까지 가야 해서 진료를 볼 엄두도 안 났는데 서산까지 내려와 진료를 보는 의사가 있어서 감사하다"고 했다.

진료하는 환자는 하루 평균 40명. 대부분 처음 진료를 보는 환자여서 환자

상태 파악에만 많은 시간이 걸린다.

환자가 몰리는 날이 많아 진료 종료 시간을 한참 넘긴 후에도 진료가 이어질 때가 많다.

한 교수는 "하루 3시간 이상 차를 타고 이동하고, 많은 환자들을 보느라 한번 다녀오면 온몸이 녹초가 될 정도로 힘들다"며 "몸은 힘들지만 의사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 앞으로 서산의료원에서의 진료를 계속 이어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파견진료는 큰 성과를 내고 있다. 최근에는 가슴에 통증을 느껴 서산의료원을 찾은 50대 환자가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았다. 한 교수는 직접 급급차에 동승해 환자를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으로 이송했고, 완전히 막혀있던 우측 관상동맥에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해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

이성호 병원장은 "지역 거점 대학병원으로서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의료기반이 열악한 지역에 본원의 우수한 의료서비스와 신속한 응급전원 시스템을 공유함으로써 지역의료 활성화되고 더 많은 국민들이 좋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인사

◆경북 영천시 △5급 승진 ▲총무과 윤동훈 김명규 ▲일자리노사과 김동현 ▲평생학습관 박태식 ▲회계과 이명희 ▲가족행복과 조명화 ▲농업정책과 이종홍 ▲산림과 배대환 ▲환경보호과 권영철 ▲건설과 전경하 ▲건축디자인과 전진희 ▲농촌지도과 하태일

◆조선IS ▲대표 심형권 ▲내세일부문장 조계강 ▲경영부문장 이운찬 ▲신사업부문장 강민구

부음

▲김세준씨 별세, 김정심씨 남편상, 지숙·지선(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지영(서경운수 이사)·영화(한국일보 논설위원) 부친상,

김규형(삼성화재 전무)·김혁(SKB 미디어전략본부장)씨 장인상, 류소영(구암고 교사)씨 시부상= 13일 오후 7시8분,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16일 오전 7시. ☎ 02-2258-5940 ▲정순애씨 별세, 허옥희(전주시의원)씨 시모상= 14일 오전 7시, 전주 효자정레타운 2층 201호, 발인 16일 오전 9시. ☎ 063-228-4441